

ICME에의 참가¹⁾

박 한 식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1. ICMI의 조직과 ICME

세계 수학자들의 모임으로서 국제수학자연맹(IMU, International Mathematical Union)이 있다. 국제수학자연맹은 4년마다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국제수학자회의(ICM;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라고 한다. 이 국제수학자연맹의 산하단체로서 국제수학교육위원회(ICMI: International Commission on Mathematical Instruction)가 있다. 이 수학교육위원회가 또 4년마다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국제수학교육회의(ICME: International Congress on Mathematical Education)이다. 국제수학교육회의가 열리는 중간에 국제수학교육위원회가 후원하는 지역의 수학교육회의도 있다.

먼저 ICMI와 ICME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자.

ICMI가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1908년 4월 Rome에서 개최된 제4차 수학자회의에서였다. 독일, 영국, 그리고 스위스가 위원인 중앙위원회는 일반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모든 수준에서의 수학교육의 프로그램에 관련된 연구에 관련된 회의 개최를 주장하였다. 1912년에는 중앙위원을 미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랑스로 확대하였다. 1914년에는 28개 나라가 ICMI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4번의 국제회의는 1910년 8월의 Brussels, 1911년 9월의 Millan, 1912년 8월의 Cambridge, 1914년 4월의 Paris에서의 회의이다.

ICMI의 사업은 세계 제1차대전으로 중단이 되고, 1928년까지는 중앙위원회조차 설립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다시 세계 제2차대전으로 다시 중단하게 되었다.

1952년 새롭게 국제수학자연맹(IMU)이 결성되고, ICMI의 새로운 위원회가 결성이 되었다. 1954년에 ICMI의 새로운 집행위원회가 결성이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ICME가 시작되었고, 금년에 제10회가 개최된 셈이다. 제1회에서 제10회까지의 개최년도와 나라는 다음과 같다.

제 I 회	1969년	프랑스	Lyon
제 II 회	1972년	영국	Exeter
제 III 회	1976년	서독	Karlsruhe
제 IV 회	1980년	미국	Berkeley
제 V 회	1984년	호주	Adelaide
제 VI 회	1988년	헝가리	Budapest
제 VII 회	1992년	캐나다	Quebec
제 VIII 회	1996년	스페인	Sevilla

1) 이 강연은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지원처의 명사 초청 특강 프로그램 지원에 의한 것임.

제 IX 회	2000년	일본	Makuhari
제 X 회	2004년	덴마크	Copenhagen
제 XI 회	2008년	멕시코	

나는 이들 ICME가 개최되고 있다는 것을 1970년에 외국의 수학에 관련된 잡지를 통해서 알았으나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겨우 ICME-4(1980년)에 가서 참석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당시 우리나라에 외화가 없어서 정부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면, 경비를 부담하는 초청장이 있어야 출장 허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1980년 ICME-4에의 참가

ICME-4는 미국의 Berkeley에 있는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1980년 8월 10일에서 16일에 걸쳐서 개최되었다.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가 이러한 학술적인 모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청장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1979년 10월에 미국의 San Diego의 주립대학에 객원교수로 있을 때, ICME-4의 준비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San Jose의 한 대학에 있는 교수를 직접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초청장을 보내 달라고 부탁을 했다.

ICME-4의 집행부에서 보내온 초청장은 일반적인 회의에서의 초청이 아니라 회의에서 한 분과의 사회자로서의 초청장이었다. 즉 “수학교원 재교육에서의 수학적 교육적 내용의 통합” 분과에서의 사회자이었다. 이 분과의 토론자는 영국의 Nottingham 대학의 David A. Sturgess 교수와 미국의 Austin의 Texas 대학의 E. Glenadine Gibb 교수이었다.

사회를 보는 사람들의 회의가 있다고 하기에 강당에 들어갔다. 대학 구내의 하 구석에 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 가면 각 분과의 팻말이 붙어 있는데, ○일 ○시에 사회를 보는 사람과 발표를 하는 사람이 해당분과의 팻말이 붙어 있는 곳에서 만나도록 하라는 이야기였다. 물론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발표를 하는 사람을 만나서 소개할 인적 사항을 적어달라고 해서 사회를 무사히 볼 수 있었다.

이 회의에 참가한 사람의 수는 약 4000명이었고, 그 때까지 이러한 거대한 회의에 참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소한 일이 많았다. 유명한 George Polya가 회의의 명예회장이 되어 있었고, 프로그램의 책자의 서두에 미국의 Carter 대통령의 축하, 그리고 California 의 Edmund 주지사의 격려사 등이 있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5명의 전체강연자 중에 중국의 Hua Loo-keng(華羅庚) 교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강연제목은 수학적방법의 대중화를 위한 한 경험담이었다. 이 화교수를 환영하기 위한 Berkeley 대학의 게시판에 나붙어 있던, 중국과 대만의 학생들의 벽보를 보고, 과연 중국은 대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만 해도 중국은 죽의 장막이라고 하여 우리들이 여행을 할 수 없었던 나라 중의 하나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반공교육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상주의는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괴물로 생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우리나라 사람은 고려대학교의 유희세 교수, 문교부의 이광복 편수관, 그리고 이화여대의 신동선 교수, 인화공전의 이재욱 교수 그리고 나 그래서 모두 5명이 참석을 하였다. 고려대학교의 유희세 교수는 포스터전시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발표한 논문의 포스터의 곁에 가서 질문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유 교수가 같이 가자고 해서 함께 포스터의 옆에 서있었는데 한 미국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걸기에 유 교수의 논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 분의 이야기는 논문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본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었다. 역시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다각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3. 1983년 ICMI-JAPAN에의 참가

1983년 10월 10일에서 14일에 걸쳐서 일본 동경에서 ICMI-일본수학교육학회 공동주체의 수학교육 국제회의(ICMI-JSME Conference on Mathematical Education)가 개최되었다. 나는 회의의 조직위원장의 초청을 받아, 이 회의에 참가를 하였다. 이 회의에는 한국에서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을 하였다.

이 회의의 첫날의 서두에 2개의 전체강연이 있었는데, 나는 이 전체 강연의 토론자로 지명이 되어 있었다. 전체강연은

- 1: 일본의 Kawaguchi 교수의 "Fundamental Philosophy on Curriculum Making of Mathematical Education"
- 2: 필리핀의 Nebres 교수의 "Problems of Mathematical Education in and for Changing Societies - Problems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이었다.

이 회의의 공용어가 일본어와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일어는 영어로 영어는 일어로 동시통역이 되고 있었는데, 나는 영어는 자신이 없고, 일본어는 서툴지마는 자신이 있어서, 일본어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할 수 있었다. 이 회의의 보고서에 Park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이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다.

이 회의에서 미국의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의 Jerry Becker 교수를 만날 수 있었다. 한 분과(이 분과의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에서 당시 일본의 친구상대학이라고 하는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효고(兵庫)교육대학의 교수가 새로운 구상의 교원양성대학인 자기 대학에서의 수학교육전공과정에서의 교육과정을 소개하였다.

나는 당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참다운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려면 서울대학교에서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사범대학 독립에 대한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효고교육대학이라는 새로운 구상의 교원양성대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컸다. 그래서 만사를 재치고 이 발표에 참석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발표가 끝나고 질의 시간에 Becker 교수가 수학에 관한 강의는 있는데, 교과교육 이틀테면 “수학교육과 사회”와 같은 강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였다. 발표자는 지금은 없지만은 졸업생의 발표 논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는 생길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 이 질문이 나의 마음에 들어 발표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Becker 교수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그 이후 계속 교류를 하고 있다. 이 Becker 교수는 일본, 중국, 대만에서 하는 지역 국제회의에는 반드시 관여를 하는 교수이다. 아마 이들 나라의 수학교육에 관련된 교수들 가운데 이 대학 출신이 많은 것으로 나는 짐작을 하고 있다.

§4. 1984년의 ICME-5와 88년의 ICME-6

ICME의 회의의 마지막 날에는 다음 ICME의 개최지와 날짜가 공고되고 4년 뒤에 다시 만나기를 기약한다. ICME-4의 끝나는 날, 다음의 ICME-5는 1984년 8월 22일에서 27일에 걸쳐서, 남 호주의 Adelaide에서 개최된다는 것이 발표되었다. 나는 4년 뒤에는 ICME-5에 기필코 참석하여, 수학교육에 관한 논문이나 발표를 해야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Berkeley를 떠났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독립시켜서 한국교원대학교를 설립한다는 이야기가 1982년부터 있기 시작하였다. 내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시절에 주장하던 일이라 이것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었다. 따라서 ICME-5에의 참석은 관심 밖의 일이 되고, 공교롭게도 ICME-5가 개최되는 달인 8월 1일에 서울대학교에서 한국교원대학교로 전입을 하였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ICME-5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다.

다음의 ICME-6에는 참석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헝가리의 Budapest에서 개최되었다. 그런데 당시 헝가리는 공산국가이었다. 공산국가에 여행을 하려면 중앙정보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었다. 중앙정보부의 허가를 받아가면서 참석을 할 생각은 없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ICME-6에도 결국 참가하지 못하고 말았다.

§5. 1992년 ICME-7에의 참가

ICME-7은 캐나다의 Quebec에 있는 Laval 대학에서 1992년 8월 17일에서 23일에 걸쳐서 개최되었다. 당시 나는 한국교원대학교를 정년퇴임을 하였고, 또 외국의 여행이 자유로와 진 상태이므로 혼자 흥분한 기분으로 이 회의에 참가를 하였다. 미국의 Washington을 걸쳐서 Quebec으로 갔는데, 공항에서 회의 관계자가 나와서 안내를 하고 있었다. 이곳은 불어권이라 일반사람들에게는 영어가 통하지를 않았다. 좀 불안하기도 했는데, 여하간에 안내에 따라 택시를 타고, 회의 등록하는 데에 가서 등록을 하니, 숙소도 정해주고 숙소로 가는 차편을 일어서어서 지시에 따라 숙소로 향하였다. 나의 방을 눈앞에 두고 가는데 과거대의 최영한 교수를 복도에서 만났다. 정말 반가웠다. 나중에 보니 강원대학교의 신현성 교수도 참가하고 있었고, 신 교수는 포스터 전시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나는 이 회의의 WG 6 :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 education에서 논문을 발표하려고 신청을 했었다. 이 그룹의 조직책임자는 미국의 John Dossey이었다. 책임자는 나의 논문을 포스터 전지에서 발표하라는 연락이 왔다. 그러나 나는 포스터 전지에 발표할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발표를 단념을 하고 있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다시 논문을 보내보라는 연락이 왔다. 그래서 다시 보냈는데 역시 포스터전지이었다. 이 Dossey를 4째날 관광하는 날의 점심 식탁에서 만났는데, 세상이 넓고도 좁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마는 이 사람은 자기들끼리 WG에서 협의한 것을 하나의 책자로 만들려고 자기네들끼리 발표자, 토론자를 조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수학교원 양성이나, 수학교원 재교육에서 현장에서 다루는 학교 수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인데, 이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생각과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발표장에 참여하는 것을 꺼렸던 것임을 알았다.

이 회의에서 한 작업을 정리하여 나에게도 책자를 보내왔는데, 대금을 보내주었고, 이 책자는 현재 신현용 교수의 연구에 참고가 될까 해서 기증을 했다. 이 회의에서 흥미롭게 본 것은 관광에 나서는 4000여명의 참가자들을 질서 있게 100여대의 버스에 나누어 태워서 목적지로 보내는 절차이었다. 관광지는 6곳인데 각 참관자들에게 나누어 준 카드는 색깔이 들어 있었다. 6곳의 관광코스를 크게 두 부분으로 쪼개서 8시 30분과 9시 출발 팀으로 나누고, 각 시각마다 큰 색깔이 있는 깃발을 꽂아 놓고, 표의 색깔과 같은 깃발 아래 모이도록 하고, 오는 대로 버스를 태워서 만원이 되면 출발을 시켰다. 4000여명이 관광에 나서게 되었는데, 질서 정연한 진행은 정말 수학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6. 1994년 ICMI-CHINA에의 참가

1994년 8월 16일에서 20일에 걸쳐서 중국의 상하이(上海)에 있는 화동사범대학(華東師範大學)에서 수학교육의 ICME-CHINA의 지역회의가 개최되었다. 나는 Topic Group 2의 Mathematics Curriculum in Teacher Preparation에서 사회도 하고 또 다음과 같은 주제의 논문도 발표하였다.

Mathematics for teachers of mathematics

이것은 앞에서 말한 ICME-7에서 발표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 회의가 끝나고,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같이 사회를 본 중국의 Junjie Liu 교수와 공동명의로 보고를 하였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한국교원대학교의 신인성교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특별히 밝히고 싶다.

다음 해인 1995년 8월 19일에서 23일에 걸쳐서 호주의 Melbourne의 Monash 대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국제회의가 있었다.

International Conference: Regional Collaboration in Mathematics

Education and Environmental Mathematics Competition:

나는 이 회의에서 국제계획위원회(IPC)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 회의를 주관하는 Alan Bishop 교수의 배려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이것을 밝히는 것은 앞으로 이야기

할 ICMI-EARCOME-1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Alan Bishop 교수를 알게 된 것은 1993년 7월 18일에서 23일에 걸쳐서 일본의 주쿠바 대학에서 개최된 PME-XVII 에서이다. 회의 마지막 날 일본의 참석자를 위해서 Alan Bishop 교수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제목은

여러 문화의 교육과 수학의 학습지도

이었다. 이 강연을 듣고 공감하는바가 있어서 강연이 끝난 뒤, 따로 만나서 여러 가지 수학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PME에는 한국에서도 여러 사람이 참석하였고 또 최영한 교수, 당시 한국교원대학교의 박사과정 재학 중이고, 지금은 춘천교육대학에 근무하는 박성선 교수도 논문발표를 하였다.

§7. 1996년 ICME-8에의 참가

1996년 7월 14일에서 21일에 걸쳐서 Spain의 Seville에 있는 Seville 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0여명이 참석하였고, 청주교육대학의 김수환 교수, 홍익대학의 박경미 교수 등이 각기 분과발표에 참여하고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나는 이들 교수의 발표장에 나가서, 발표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수학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ICMI, ICME의 구별도 모르고, 학술재단의 연구비로 ICME의 프로그램을 분석한일들이 화상되기도 하였다.

최영한 교수의 ICME-8의 보고가 한국수학교육회지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을 하겠다.

§8. 1998년 ICMI-EARCOME-1의 개최

1998년 8월 17일에서 21일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청주의 근교에 있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제1회 수학교육국제위원회 동아시아 수학교육 국제회의” 즉 “ICMI-EARCOME 1”을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1995년 10월 하순에 싱가포르의 Peng Yee Lee 교수로부터 나에게 한국에서 동아시아의 수학교육 국제회의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편지를 받고, 주의의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국제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노력 끝에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한국교원대학교의 신현용 교수의 노고가 컸다. 그리고 국제회의 개최에 관한 노하우는 위에서 말한 Alan Bishop 교수가 주가 되어 개최한 호주에서의 국제회의 때, 국제기획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관여함으로써 얻은 것이었다.

Peng Yee Lee 교수는 당시 ICMI의 집행부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1994년 ICMI-CHINA에서 Lee 교수를 만나서 아는 사이 이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제안을 나에게 하게 한 것은 Alan Bishop 교수인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다.

이 회의는 국내에서 250여명, 일본 중국을 비롯한 15개의 외국에서 250여명 등 500여명의 수학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이 모여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세계의 수학교육

학자들과 우리나라의 수학교육학자들이 교류를 하게 된 것이 나는 무엇보다 큰 수확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처음 이 회의를 계획할 때는 차 한 대 값을 내놓으려고 각오를 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불행한 일 이지마는, IMF 때문에 한화의 가치가 폭락하는 바람에 많은 돈을 보태지 않고도 이 회의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

이 회의는 제2회를 2002년에 Singapore에서 개최를 했다. 나는 개인사정으로 여기에 참석을 못하였다. 2005년에는 제3회를 중국의 상하이에서 개최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꼭 참석을 할 예정으로 있다. 그리고 제4회를 2007년에 Malaysia에서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이 회의의 기획위원을 맡았다고 하는 Malaya 대학의 Lee Siew Eng(李秀英) 교수로부터 들었다. Lee 교수는 ICME-10에서 같은 집에 Home Stay를 하게 되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여하간에 우리가 창설한 동아시아수학교육국제회의가 동아시아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일종의 자부심을 느낀다.

§9. 2000년 ICME-9에의 참가

2000년 7월 31일에서 8월 6일에 걸쳐서 일본의 도쿄 근교에 있는 마꾸하리에서 ICME-9이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회의장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도 이지마는 우리나라 수학교육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ICME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서 40여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 회의에 참가를 하였다. 그리고 한국교원대학교의 신현용 교수, 지금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있지마는 당시는 이화여대의 권오남 교수 등이 Regular Lecture에서 발표를 했다.

ICME-9를 주도한 일본의 후지다 교수로부터 감사하다는 친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어서 고맙다는 이야기와 함께, 한국에서는 한 분도 참가비에 대한 보조를 요청한 사람이 없어서 더욱 고맙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이 회의를 하면서 참가비의 보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 것 같다.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수학교육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 등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일본의 대학 교수들이 이 회의에 참가하면서 회비를 두 배씩 내었다는 이야기를 참석한 일본교수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더욱 이 이야기가 나에게서 실감이 났다.

그런데 다른 ICME에 비해서 일본에서는 참석한 사람이 적은 것 같고, 또 회의가 끝났는데도 ICME-9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되지도 못했다. 이 회의도 한국수학교육회지에 보고서가 나와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그것에 머루고 이만 줄이겠다.

§10. 2004년 ICME-10에의 참가

2004년 7월 4일부터 11일에 걸쳐서 ICME-10이 Denmark의 Copenhagen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 50여명, 미등록한 대학원생까지 합하면 60명 이상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ICME 창설 이래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였고 또 많은 분들이 발표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분이 발표하리라 믿고 여기서는 이 정도에서 그치겠다.

여기서 특히 말하고 싶은 것은 국제기획위원회(IPC)에 한국의 박경미 교수가 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것이며,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ICME-10의 사무절차는 과거 내가 참석한 어느 ICME 보다 못하다는 느낌을 가졌다. 첫째는 Student Hostel에 묵기 위해서 일찍이 등록을 했다. 즉 2003년 10월15일에 Fax를 보냈다. 그리고 Country에는 South Korea로 썼는데, 2003년 10월 27일에 온 접수했다는 E-Mail에는 나라가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로 되어 있고 전화번호도 오기가 있어서 바로 시정해달라는 E-Mail을 보냈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리고 숙소에 대해서는 가타부타의 연락도 없어서 2004년 4월경에 다시 어떻게 되었는가 문의를 했더니 나라 이름은 고쳤다는 이야기이고, 숙소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 그래서 잘 되었지 하고 있는데, 덴마크로 떠나기 4일 전에 코펜하겐의 한 아주머니로부터 당신을 ICME-10 기간 중에 우리 집에 묵게 되었는데 공항도착의 시간을 알려주면 마중을 나가겠다는 E-Mail이 날라 들어 왔다. 그래서 나는 Student Hostel을 원했기 때문에 사양하겠다는 E-Mail을 바로 보내주었다. 결과적으로 Student Hostel을 헤맨 결과 E-Mail을 보내온 아주머니 집에 Home Stay를 하게 되었는데 코펜하겐의 회의는 첫날부터 고생을 하고 짜증이 나는 첫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회의 기간 중의 관광하는 날도 시정 앞 광장에 모아 놓고, 출발하는 일들이 아무리 보아도 수학적으로 볼 때, 합격점을 줄 수 없는 진행이었다.

§11. 전망과 바람

지금까지 내가 참석한 ICME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ICME-9와 ICME-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에 뜻을 둔 분들의 ICME에의 참석이 급증하였다. 이 정도로 참석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수학교육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소외됨이 없이 당당하게 세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참석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각 대학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몇 개 대학에 편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것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계속 국제기획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전체 강연을 하는 우리나라 수학교육학자가 나왔으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외국의 수학교육의 이론에 끌려 다니지 말고, 우리나라 고유의 수학교육에 관련된 이론을 개발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둔다.

끝으로 우리나라 수학교육학자중에서 ICMI의 집행부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마지막의 간절한 소원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ICMI에서 하는 일이나, ICME의 행사를 보고 잘못된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비판하고 의견을 말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학회 활동에 대한 식견과 영어구사능력을 동시에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젊은 학자들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